

해태의 추억 깃든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주춤’

행안부, 중앙투용자심사 재검토 제도 ... 11월 재심사 가능 457억 들여 아마추어 야구장·풋살장·주차장 등 조성 계획

한 때 국내 프로야구를 호령했던 해태 타이거즈의 추억이 깃든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이 주춤거리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무등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용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아 오는 11월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안부는 당시 중앙투용자심사에서 국비 지원분을 명확히 명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당시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비

지원계획 확보와 지방비 재원조달계획 마련, 완공 뒤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수익시설 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등 457억원을 들여 야구장 일부 관측석을 철거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새 아마추어 야구장을 만드는 것이다.

지하에는 2층 규모(1252만)의 주차장을 건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본부석에는 관리실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과 클라이밍장을 설치한다.

내외야 관측석을 철거한 공간과 경기장 주변에는 풋살장, 다목적구장, 조깅트랙, 야외체육기구 등을 갖춘 체육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웰빙 지압길, 산책로, 친환경 어린이 테마파크, 보행광장, 바닥분수, 소공연장도 조성된다.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이 일단 행안부로부터 제동이 걸림에 따라 다음 심사가 예정된 11월이나 안건 재심사가 가능하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경기장 활용방안 용역에 들어가 전문가 의견 수렴, 시민공청회 등을 거쳤으며 올해 재정투용자 심사와 설계를 거쳐 2020년까지 야구장, 지상공원 조성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무등산이 한눈에 보이는 광주 북구 임동에 자리잡은 무등야구장은 1965년 세워져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해태 타이거즈와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으로 쓰였다. 이후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가 건립되면서 2013년 10월 4일 경기를 끝으로 프로야구 경기는 더 열리지 않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더스틴파워 등 4개 기업과 전남도, 254억 투자협약

전남도는 12일 “에너지 저장장치(ESS) 제조사 등 4개 기업과 모두 254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CEO 등을 초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지역 투자환경을 홍보했다.

저렴한 산업용지,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에서 생산된 철강·화학 원자재, 최고 품질의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을 비교우위 자원으로 소개했다.

안정된 노사문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장점도 부각했다. 분양률이 저조한 산단이 있는 6개 시·군은 산단별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설명회 후에는 투자협약이 이어졌다. 더스틴파워는 나주 혁신 산단에 53억원을 투자해 ESS 제조공장을, 옥전은 장흥 바이오 산단에 50억원을 들여 버섯 재배 관련 공장을 건립한다.

로우카본테크는 강진 산단에 120억원을 투자해 탈황 촉매 제조공장을, 스마트그린에너지는 강진 산단에 31억원을 투자해 열분해유와 전력생산 공장을 짓는다.

우기중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전남도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힘을 쏟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법,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광태)은 12일 오전 11시 50분부터 12시 20까지 30분간 법원 로비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학생들과 KB청소년음악대학 조선대 캠퍼스 학생을 초청해 ‘광주지방법원과 함께하는 한밤의 찾아가는 나눔 음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기념 OPEN COURT 주간(9월 1~15일)을 맞아 법원을 찾아오는 민원인과 법원 직원들에게 잠시나마 휴식과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박진표기자 lucky@·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각종 경제지표 직접 챙긴다

매월 한차례...지역경제 활성화 강구

경기동행종합지수 개발 첫 공개

지역 경제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매월 한 차례씩 각종 경제지표를 직접 점검한다. 기관 간 미흡한 지표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2일 오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회의실에서 경제지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시장을 비롯, 남현일 광주상공회의소 부회장, 박양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 김영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역경제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 시장은 “남북문제, 북미문제, 자국 우선주의, 중국의 사드보복, 새 정부 하에서 국민들의 높은 기대치 등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이 힘든 상황이지만, 책임 있는 기관들이 모여 함께 걱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의 22개 사업이 포

함됐고 양대 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힘을 모아주는 등 나름의 준비들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하고 “시는 모든 일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각 기관들이 주문과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양수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수출과 소비, 설비투자 동향, 미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사드보복, 북한 핵실험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문권순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광주의 고용이 앞으로 좋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자동차 수출 등에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는 개별 경제지표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투자, 고용, 소비물가, 금융통화, 대외거래 등 5개 부문별로 광주 지역내총생산(GRDP) 또는 경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8개 지표를 구성해 광주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종합지수를 개발해 이날 처음 공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법률행정지원 시스템 효과 ‘특독’

법률전문가 채용 주요 현안 자문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행정지원 시스템’이 소송 예방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행정 전문·복합화에 따라 법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행정·민사 소송 등이 환경, 회계(계약) 등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지난 3월 법률전문가(변호사) 2명을 추가 채용, ‘법률행정지원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법률지원 내용은 현안사업 MOU, 협약서 및 계약서의 법률적 쟁점사항 사전 검토, 분야별 법률자문, TF참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의 각종 서면 작성, 변론과정 등의 소송 수행 지원, 소송 주요 사례 분석 자료공유 등이다.

이를 통해 내부 직원들은 변호사들에게 수시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검토 및 사전자문을 받게 됐으며 시장 법률문제를 신속·정확하게 처리, 소송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 3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법률행정지원 시스템을 통한 자문건수는 216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 서면자문 26건 및 구술자문 165건, 민간공원조성사업 등 T/F회의참석 22건, 소송관련 검토 3건 등이다.

법률행정지원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광주시에 대한 행정신뢰도 역시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내부 자문업무 효율성과 법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송관련 법률자문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전 직원이 활용 가능한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도입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 수산물 생산량 135만t ... 해면양식 97%차지

전남도는 12일 “지난 6월 말 기준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량은 135만t, 생산액은 1조3439억원을 기록, 지난해보다 각각 24만t(21.6%), 2643억원(24.4%)이 늘었다”고 일 밝혔다.

특히 해면양식(바다에서 수산물을 기르는 일) 생산량이 130만t으로 전체의 97%를, 생산액은 9285억 원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은 23만t(22%), 생산액은 2169억(30.5%)이 늘었다. 연말까지 생산액은 1조5000여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면양식 생산은 2012년 8592억 원 규모에서 2016년 1조2404억 원으로 최근 4년간 3812억 원(45%)이 증가해 연평균 11% 이상 성장하고 있다. 올해도 수산물 수출 증가 및 가치 상승에 따른 생산 증가로 약 20%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양식어업의 생산 확대를 통해 수출이 늘고, 다시마 등 해조류 신규 어장을 확대하고 새우, 전복, 꼬막 등 산업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한 해상, 가리비 등 경쟁력 있는 유망 품목 양식에 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산인들
농민후계자가 직접재배한
월빙자미잡곡
농민후계자가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국내산 100% 자미잡곡세트로 건강을 선물해보세요!!

자미잡곡
자미잡곡
자미잡곡
자미잡곡

고급잡곡5종세트
고급잡곡4종세트

자미잡곡
월빙바람을 타고 잡곡이 “건강지킴이”로 뜨고 있다.

자미농민후계자영농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1156-3번지
Tel. (062)514-2902 H.010-8600-4525